

신재생발전기 전력계통 접속조건 마련

- 전기위원회, 한전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인가 -

문의 |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전력계통과(02-2110-4948)

【 주요 개정사항 】

- 신재생에너지발전기의 전력계통 연계기준 신규 제정
- 구역전기사업자의 하절기 전력시장거래에 필요한 송·배전망 이용절차 및 조건 마련
- 송전·배전 이용규정 통합 및 간소화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28일 전기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전의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사항을 인가함

■ 주요 인가된 사항은

① 20MW이상 대용량 신재생발전기의 전력계통 연계기준 마련

● 최근 출력이 불규칙한 신재생발전기의 빠른 증가로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제주지역은 내년부터 계획된 풍력용량이 계통의 수용한계용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 신재생발전기 용량(육지) : ('05)1,721MW → ('10)3,646MW (연평균 17.5% 증)

* 제주풍력 : ('10.6 건설중 포함) 87MW, ('11누계) 180MW, ('11 한계출력) 121MW

【 신재생발전기 계통고장 사례 】

① 제주계통 고장시 풍력설비 대규모 정지상황 발생('09. 3. 20)

* 제주계통 154kV 안덕-신제주간 송전선로 고장시 운전중인 풍력발전기의 비정상적인 계통탈락(2만kW, 3.1만 kW → 1.1만kW)

② 울릉도 풍력발전기 출력급변에 따른 전력계통의 문제점 발생으로 가동 중단('04. 5.8)

* 울릉도는 풍력발전기 용량(600kW)이 계통수요('99, 2,376kW)에 비해 과다하여 전력계통의 안정적 유지 곤란

- ◎ 이에 따라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수용성을 고려하여 20MW이상 신규 신재생발전기(단지포함)는 계통운영자가 운전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 구축 및 일정수준의 전기품질을 유지해야 하며, 비상시 출력제어가 가능하도록 설비를 구축해야 함
 - 특히, 제주지역은 풍력의 총출력이 계통한계용량을 초과할 경우 전체계통보호를 위해 출력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음
 - * '11년 제주지역 풍력이 180MW일 경우 설비이용률 고려시 신규인가 설비 93MW에 대해 연간 3.21%(280시간)의 출력제한이 있을 것으로 추정
 - ◎ 또한, 태양광 등 소규모 신재생발전기의 계통접속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현행 3MW이상시 전용배전선로를 설치해야 하는 연계용량을 '11. 9월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칙에 신설하였으며, 해상풍력에 대해서도 금년말까지 별도로 연계기준을 마련토록 하였음
 - ② 전기사업법령 개정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가 하절기(6.1~9.30)에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등 이용절차와 함께 송·배전설비 이용요금부과 등 이용조건을 규정하였음
 - ③ 그동안 별도로 운영중이던 송전이용규정과 배전이용규정이 내용상 중복조문이 많음에 따라 이용자 편의를 위해 통합함으로써 총 120개 조항(송전 68개, 배전 52개)을 82개로 대폭 간소화함
- 지경부는 금번 규정 개정을 통해 대용량 신재생발전기들에 대해 전력계통의 수용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한편,
- ◎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확대에 중요한 제도적 인프라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신고리 원전 3호기, 원자로설치

- 해외 수출용 신형원전의 건설 본격화 -

문의 | 지식경제부 원자력산업과 이재홍(02-2110-5482)

- 지식경제부(장관 : 최경환)와 한국수력원자력(사장 : 김종신)은 7.15(목), 공사중인 신고리 원전 3호기의 핵심설비인 원자로를 설치하고 기념행사를 가졌다.
- ◎ 이날 행사에는 UAE에서도 ENEC*의 모하메드 알 하마디(Mohamed Al Hammadi) 사장이 참석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 * ENEC : 아랍에미리트연합 원자력공사(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

【 신고리 3,4호기 건설 개요 】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 용량 및 원자로형 : 1400MW × 2기, 가압경수로(APR1400)
- 건설기간 : '07.9 ~ '13.9(3호기), '14.9(4호기)
- 시공사 : 현대건설 컨소시엄 (현대-두중-SK)
- 주기기공급 : 두산중공업

- 신고리 원전 3호기는 우리나라가 국가선도기술개발과제(G-7 Project)로 1992년부터 10여년에 걸쳐 자체적으로 개발(개발기간 : '92~'01, 개발비 : 2,346억원)한 신형경수로 원전으로,
◎ 국내에는 처음으로 건설되며, 작년 12월 우리나라가 사상최초로 수출에 성공한 UAE원전과 같은 원전 (APR1400)이다.

* APR1400(Advanced Power Reactor, 1400MW) : 기존 한국표준형원전(OPR1000)에 비해 안전성 및 경제성을 개선하여 개발한 신형 원전

- 이날 김영학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차사를 통해 이번 원자로설치가 우리 원전의 수입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확실한 실체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원전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고, 신고리 3·4호기를 세계 최고의 원전으로 건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신고리 원전 3·4호기는 2013년 2014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며 현재 약 5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동 원전이 준공되는 2014년에는 총 26기*의 원전이 우리나라 총 발전량의 37.4%를 담당하게 된다.

* 국내 원전현황

- 가동중(20기) : 고리 4기, 영광 6기, 월성 4기, 울진 6기
- 건설중(6기) : 신고리 1,2('10, '11), 신월성 1,2('12, '13), 신고리 3,4('13, '14)

* '14년 총 발전량 : 509,263GWh, 원자력발전량 : 190,263GWh(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한편, 동 원전 건설은 공사기간 7년('07.9~'14.9) 동안 발전소 건설에 연인원 약 620만명*의 투입되며, 원전 건설 및 운영 기간 동안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총 1조 5천 6백억원이 지역사회에 지원되어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지역지원규모 : 특별지원금 약 1,147억원, 기본지원사업 약 3,808억원, 사업자지원사업 약 3,808억원, 지역개발세 약 6,820억원

* 건설인력 : 100만kW급 신고리 1,2호기 및 울진 5,6호기 시공시 투입인력 연인원 약 513만명에 설비용량(140만kW) 증가에 따른 인력투입 20% 증가 추정

-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유가 급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원자력발전이 주목 받고 있으며, WNA* ('09.10)는 2030년까지 약 430기의 원전이 신규 건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WNA(World Nuclear Association) : 세계원자력협회

산업단지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추진기반 정비 -

문의 |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02-2110-5301)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월 13일 공포·시행하였다.
 - 이번 산집법 개정은 지난 '09. 4월,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고된 '산업단지 리모델링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금년 4월 개정·공포된 산집법(법률 제10252호, '10. 7. 13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 * 수요중심의 산업단지 공급·관리를 위한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노후 산단 구조고도화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마련”, “추진절차 단축” 등

- 이번 산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기반 정비 등이다

-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는 현행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및 지원시설구역에만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공공시설구역의 일부(30% 이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 *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 국가·지자체가 공공시설구역 용지의 일부를 임대하여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허용함으로써 성장초기 단계로써 부지임대 수요가 큰 경향인 신·재생에너지 업체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였다.
 - * 전국 산업입지 수요조사('09년말, 제조업체 1만여개 대상) 결과 부지 희망유형이 매입(90%), 임대(10%)로 나타난 반면, 신·재생에너지업체 34개 대상의 설문조사('10.3월)에서는 44.1%(15업체)가 부지임대를 희망

- 아울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기반 정비를 위해 공장,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건축사업을 규정하고
 - 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100분의 50이상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및 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도록 하였다.
 - 또한 산집법 개정에 따라 민간(토지소유자)도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항개발로 참여 가능하게 된 바, 대항 절차 등 사업 대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였다.

■ 기타 산집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 ①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리권자*가 그에 따른 지가상승 분의 100분의 50이상의 산업용지 및 시설을 기부받아 단지 내 기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산업단지(지식경제부장관),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농공단지(시장·군수·구청장)
- ② 현행 산업용지 등의 임대계약기간 제한(5년 이상, 임차인 요청시 3년 이상)을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임대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탄력성을 높이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희망할 경우 전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5년까지 계약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집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 ① 수도권에서 공장이전을 하려는 자가 공장설립완료신고 시 공장등록대장등본 또는 기존공장폐쇄확인서 추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의무를 삭제하여 공장설립완료신고서 구비서류를 간소화
- ② 공장등록 후 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의 변경 없이 업종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변경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장설립 업종변경 승인절차 간소화
- ③ 현행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을 관련 법규의 인·허가 등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거나 받을 수 있을지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 계약체결여부 결정기간을 5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합리화

■ 지식경제부는 금번 산집법령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⑥ 또한 산업단지 공공시설구역의 일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최초 5kW급 레독스 흐름 전지 개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 새로운 전기 맞아!

- 대용량 2차 전지 제작을 위한 핵심 기술 확보 -
- 스택 설계 제조 기술 확보로 세계 수준과 동등 -
- 자체기술로 레독스 흐름 전지 스택 및 시스템 개발 성공 -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변전저장소재연구센터(042-860-3271)

- 전 세계적으로 녹색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에너지 저장' 기술인 2차 전지가 주목받고 있다. 휴대용으로 쓰이는 소형 2차 전지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기술경쟁에 이어,
- 이제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효율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스마트 그리드 등에도 적용 가능한 대용량 2차 전지 기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술진이 '5kW급 레독스 흐름 전지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 실증에 성공했다.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문희 원장)은 대용량 2차 전지 중 매우 유력한 시스템으로 떠오르고 있는 '레독스 흐름 전지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 '5kW급 스택'과 '레독스 흐름전지 시스템'을 자체 제작했으며 실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 5kW급 스택을 레독스 흐름 전지 시스템에 적용하여 충·방전 시험기로 성능 시험을 한 결과,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제품과 동등한 출력 성능을 보였으며 효율은 5~10%로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레독스 흐름 전지(RFB: Redox Flow Battery)란?
레독스 흐름 전지는 전해질의 전기화학적 가역반응에 의한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여 에너지를 장기간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2차전지이다. 전지의 용량과 출력 특성을 각각 좌우하는 스택과 전해질 탱크가 서로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지 설계가 자유로우며 설치 공간 제약도 적다.
- 레독스 흐름 전지는 기존 2차 전지와 달리 전해액에 용해되어 있는 바나듐 이온이란 활성물질이 전자를 주고받아 충·방전되는 시스템으로 전해액의 화학적 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저장시키는 전기화학적 축전장치이다.
- 이론상 수명의 제약이 거의 없으며 기존 리튬 이온전지의 수명보다 10배 이상 길다. 또한 사용 시간은 저장용량에 따라 원하는 만큼 증가시킬 수 있는 전지이다.
- 이번에 개발된 레독스 흐름 전지 시스템은 크게 스택과 전해질 탱크로 구성되며 전기화학반응이 일어나는 스택의 경우, 상온에서 작동이 가능해 2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활성물질로는 바나듐을 사용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안전성과 장수명, 폐기 처리 등 전력저장용 2차 전지의 조건을 갖췄다.

- 국내 대용량 2차 전지 연구가 본격적인 기술 개발 단계로 진입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5kW급 레독스 흐름 전지 스택 및 시스템 개발'은 그 동안 입지환경이나 자연조건에 영향을 받아 출력 변동의 폭이 커져 연속 공급이 불가능했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의 문제를 해결, 전력의 안정적 공급(출력 평준화)이 가능하게 됐다.
- 이 외에도 레독스 흐름 전지는 발전소나 전력계통, 건물에 설치해 급격한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부하 평준화 기능, 정전이나 순간저전압을 보상하거나 억제하는 기능 등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에너지저장 기술이며 대규모 에너지저장에 적합한 시스템이다.
- 레독스 흐름 전지 스택 성능에 큰 영향을 주는 '매니폴드/유로설계' 기술은 스택 제조 공정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활성 물질이 전극에서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만드는 기술이다. 스택 출력 및 효율 특성이 결정되며 스택 제조의 핵심 기술 확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 또한 스택을 제조할 때 각각 단위 셀의 적층 및 밀봉되는 정도가 전지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체 개발한 설계/제작 기술과 저가의 고분자 필름을 이용하여 제조 단가를 개선, 경제성이 있는 스택 제조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 연구책임자인 변환저장소재연구센터 진창수 박사는 "레독스 흐름 전지 시스템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스템과 발전소, 건물과 반도체공장의 무정전원장치, 무인 기지국 전원 등에 적용될 수 있으며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킬 경우 전기자동차 등에도 사용될 수 있어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2차 전지중 하나이며 유력한 차세대 에너지 저장기술이다."라고 했다.
- 또한 "연구원의 국내기술을 통해 제작된 스택을 전지 시스템에 적용한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그룹 및 회사와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결과를 이뤘으며 레독스 흐름 전지 제조 기술이 대용량 전지 상용화 개발 촉진과 더불어 차세대 그린 에너지기술 보급과 산업 확산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10년 이상 에너지저장 분야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연구원은 그동안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용 축전시스템을 개발했고 대용량 레독스 흐름 전지 핵심 기술 확보부터 인력 양성, 산업체 기술 자문에 이르기까지 대용량 전지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과 더불어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 앞으로 연구원은 실제 산업화에 요구되는 내구성과 경제성을 달성하기 위해 공정 최적화 및 장기 성능 확보를 위한 후속 연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 폰 용 모바일 웹(Web), KS 표준 제정으로 사용자 불편 해소

- 모바일 웹 콘텐츠 구축 가이드 마련 -

문의 | 지식경제부 정보통신표준과(02-509-7264)

- 스마트폰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웹 정보를 사용할 때 겪게 되는 불편함과 단말기에 따라 웹 콘텐츠를 각각 구축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모바일 웹 표준화를 통해 해결될 전망이다.
 - ◎ 모바일 웹 사이트를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개발하고, 다양한 단말기에서 편리하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웹 콘텐츠 구축 가이드가 마련된다.
 - ※ 모바일 환경은 기존 유선과 달리, 여러 종류의 단말속성(액정, 메모리 크기 등)에 의해 웹 표준을 그대로 이용할 수 없어, 모바일 웹 표준화 필요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산·학·연·관 관계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 KS 국가표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7.9(금) 오전 10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 이를 위해, 이번 공청회에서는 모바일 웹 표준 기술 및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국가표준의 도입 필요성, 제정 경위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 ※ 기술표준원은 국가적으로 도입이 시급한 모바일 웹 표준에 대하여 지난 4월부터 국가표준개발위원회, 전자문서 처리언어(JTCL/SC34) 전문위원회를 통해 국가표준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가이드 라인' 등 최종 12종을 선별하여 KS 국가표준으로 제정 예고('10.7.8)함

- 모바일 웹(모바일OK) 표준은, 단말기 기종, 운영체제(OS), 웹 브라우저(익스플로러, 사파리 등)에 상관없이 날씨, 교통, 행정 등의 정보를 검색하고 원활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웹 콘텐츠 구축에 대한 국가적 기준이 되어,
 - ◎ 국민 누구나가 모바일 단말에 최적화된 웹 콘텐츠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웹 사이트 구축을 통해, 다양한 IT 서비스의 공급·확산을 유도, 관련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모바일OK는 한 번의 모바일 웹 사이트 구축을 통해 다양한 단말 지원이 가능하며, 단말의 종류에 따라 동일 콘텐츠를 중복 개발해왔던 문제를 해결해 줌

- 최근, 시장 분석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 2013년부터 모바일 인터넷 시장이 기존 PC 기반 시장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 ◎ 모바일 웹 확산 초기 단계부터 표준에 기반한 웹 콘텐츠의 보급을 통해 모든 단말 기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 환경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모바일 웹 국가표준 제정을 통해 공공 및 산업 전 분야에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모바일 웹 콘텐츠 구축 기준을 마련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조하여 적극적인 보급 확산을 추진하고 모바일 웹 분야 관련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 및 우리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앞장설 계획이다.

우리나라 제품인증, 국제신뢰성 재평가 받는다

- KAS 제품인증, 국제기구가 갱신평가 실시 -

문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509-7230)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국제기구인 PAC(아시아태평양인정기구연합체)으로부터 기술표준원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공인제품인정제도(KAS)와 KAS의 인증기관에 대하여 7.26일부터 7.30일 까지 5일간 재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 *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국제기준에 따라 제품인증기관을 국제공인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로 전기안전공사 등 12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KAS 인증기관이 발급한 제품인증서는 해외 34개국에서 통용될 수 있다.
 - ◎ 이번 평가는, 기술표준원이 2007년 PAC과 국제상호인정협정을 최초 체결한 후 4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국제기준 준수여부, 인증기관의 시험·평가 능력 및 인증의 신뢰성 등을 재평가 하는 것이다.
- 최근 KAS는 태양광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고압전기기기의 안전분야, 친환경제품의 녹색산업 KAS 인증이 급증하고 있다.
 - ◎ 이는, 인증제품에 대한 추가시험면제, 정부보급사업 참여증대, 제품설계 및 제작단계에서 부터 KAS 인증기관의 전문인력이 품질과 안전에 대하여 심사함으로써 인증신뢰에 의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 * 신재생·안전·녹색 분야의 인증이 전체(875건)의 84%를 차지하고 있음
- 앞으로, 기술표준원은 KAS 인증을 수출전략품목으로 확대하여 품질과 안전을 국제적 수준으로 확보하고 KAS 인증제품에 대하여 외국에서 별도의 인증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을 추진하며, 업계에 KAS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국내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전기요금 평균 3.5% 인상, 도시가스요금 평균 4.9% 인상 및 연동제 복귀

문의 | 지식경제부 유전개발과(02-2110-5283)

전 기 요 금 : 평균 3.5% 인상 (8.1일 시행)
도시가스요금 : 평균 4.9% 인상 및 연동제 복귀 (9.1일 시행)
서민요금동결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요금 동결

- 지식경제부는 8. 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3.5%인상하고, 9. 1일부터 가스요금을 평균 4.9%인상하고 연동제를 재시행한다고 밝힘
- (전기) 원가보상율이 낮은 용도(교육용·산업용·가로등)를 위주로 조정(원가보상율이 높은 일반용은 동결)하되, 서민부담을 고려하여 주택용은 최소(2.0%)로 조정(농사용은 동결)하였음.

〈전기요금 용도별 조정 내역〉

비고	평균	주택	일반	농사	교육	산업	가로등	심야
조정률(%)	3.5	2.0	동결	동결	5.9	5.8	5.9	8.0

- 아울러 최근 동절기 전력수요 증가 등 전기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하여 겨울철에 적용되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조정하였으며
- 향후 전기차 보급 확산에 대비하고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기존 용도별(주택용·일반용)요금 이외에 전기차 전용요금을 설계하여 사용자가 용도별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도시가스요금 용도별 조정내역〉

구 분	평균	주택용	업무 난방용	일반용	산업용	열병합1	열병합2	열전용 설비용
조정률(%)	4.9	5.9	5.1	4.4	3.9	5.7	4.0	3.4

- (가스) 원가보다 낮은 가스요금(공급원가 대비 89%)으로 인해 누적된 미수금의 회수를 위해 평균 4.9% 인상하고, '08년 3월부터 유보된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를 9월부터 재시행하기로 함